

## 50대 총학생회 선거

## ‘쿠토피아’ “총학 권한 축소…학생회칙 전면 개정”

## 서울캠퍼스 총학 입후보자

이수형 기자 dtlbd112@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쿠토피아(KHUtopia) 선본의 단선으로 진행된다. 문과대 학생회장 당시 ‘문과대 버스대금 리베이트의혹’ 사건을 접화한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와 IT 벤처기업 창업이력 있는 송태현(경영학과 2014) 부후보의 조합이다.

쿠토피아는 총학의 권한을 해체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군부독재 시절 사회적 문제들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유명무실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총학과 별개로 자치회비를 분배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이 조직들의 올해 자치회비 사용 내역은 새울제 지원과 벚꽃영화제 진행 등이다. 사실상 총학 내 행정조직으로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 학자추, 인복위 등

## ‘유명무실’ 조직 재정비

이 조직들을 재조정 혹은 해체하겠다는 것은 총학의 의결사항 결정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의미다. 박원규 정후보는 “총학생회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정후보는 “현재 회칙은 돈과 권한의 분배가 민주적이지 않다”며 “단체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의 하고, 그에 따라 편제도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정후보는 “학원자주화를 한다는데 자주화는 무엇인지 회칙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왼쪽부터 ‘쿠토피아’ 선본의 송태현(경영학 2014) 부후보,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

“어떤 단체인지를 명확히 정의해 학생들의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회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토피아는 “교비로 지원받은 예산에 제기된 의혹들을 앞장서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총학 교비회계 사용내역은 지금껏 그 규모조차 공개된 바 없어 경우에 따라 축적예산 등 총학 재정운용에 대한 각종 의문을 생산해왔다. 박 정후보는 “축적예산에 따라 2,000만 원에 불렀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결산안에는 있는데 예산안엔 없는 이상한 돈”이라고 교비를 지칭했다.

## 교비 사용내역 공개로

## 책임소재 명확한 총학을 꾸릴 것

송태현 부후보는 “일부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면서도

“이 생각은 누군가 교비에 대해 내역공개를 요구했을 때 쓸 핑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비 사용내역 공개는 총학 재정운용을 옥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송 부후보는 “교비 사용내역 공개로 총학 재정이 위축된다면 그간 교비를 잘못 사용해 온 것”이라며 “득과 실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더더욱 공개하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 쿠토피아는 정기 여론조사와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한 소통을 약속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한 조직을 꾸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외국인 유학생 등 학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성 중립-다목적 화장실’ 설치를 약속했다. 박 정후보는 “지금 교직원화장실 등 버려져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들을 활용해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해선 “글로벌센터와

국제교육원의 외국인지원팀을 통합하겠다”며 “통역 관련 근로장학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본에 이례적으로 4명의 외국인 유학생(중국인 3명, 일본인 1명)을 두고 정책제안을 보조하고 있으며 중국어 공약집도 배포 중이다.

## ‘총장직선제’, ‘입학금 문제 해결’ 두 대표 공약 위해 노력할 것

이밖에도 지난 반 년 간 각 단과대의 전·현임 학생회장에게 자문을 받아 단과대 별 고충사항을 취합했다. 음악대학의 시설문제, 법학수업 폐지 등 구성원 별 요구를 정리하곤 이에 “음대생들이 지역사회의 공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학수업 존치·개설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는 등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총장직선제’와 ‘입학금 문제 해결’은 이

번 총학 선거의 대표공약 격이다. 총장직선제는 내년이 총장임기 마지막 해이고 신설 통합노조와 교수의회가 이미 총장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현 정부의 대학정책기조와 일치해 내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 정후보는 “학교에 중요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최종결정권자인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며 “오히려 구성원들의 모든 요구가 총장실을 종착지로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이 잘못하거나 잘했을 때 구성원 모두가 이를 공유하고 총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학금 문제 해결 공약’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금 이슈는 이미 지난해 몇몇 학생들의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번져 폐지여부를 다투고 있다. 박 정후보는 “입학금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운동의 차원에서 풀이될 생각은 없다”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총책임자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세운 선본명 ‘쿠토피아’는 이상향이다. 박 정후보는 “문과대 학생회 회장을 도전할 시기에 ‘젠 너무 이상이 커서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며 “혹자의 말처럼 이상을 실현하려다 여러 현실적 난관에 부딪혔었고 주저앉게 됐는데 송태현 부후보 덕분에 그 이상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송 부후보는 “우리가 내는 공약이 이상적으로 보인다면 현실이 잘못되거나”라면서도 “한편으론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학교를 총학생회라도 기대해야 그 절반이라도 가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 ‘열림’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 ‘동행’ “입학금 폐지와 반환 이룰 것”

## 국제캠퍼스 총학 입후보자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 올해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진다. ‘열림’ 선본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와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기호 1번으로, ‘동행’ 선본 배득현(산업경영공학 2010) 정후보와 신승룡(전자공학 2011) 부후보가 기호 2번으로 각각 출마했다. 두 선본 모두 ‘소통’을 기치로 내세운 가운데 공통된 공약이 보였으나 접근 방식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보였다.

두 선본 모두 공약 이행 정도를 학생에게 알리는 것을 소통의 기본으로 삼았다. 게시판 외에도 SNS와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약 이행 정도 보고를 약속했다. 또한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열림 선본은 분기마다 총학 및 단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행 선본은 ‘학생 직접 참여 TF’를 개최해 학내 주요 사안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 열림 “학생설문”

## 동행 “학생참여TF”로 소통

학습권 관련 공약은 큰 관점에서 두 선본이 수강신청 문제 해결과 강의 수 증설을 주장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존재한다. 열림 선본은 수강 신청 후 강사와 수업 시간에 변동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순번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강좌 매매 방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



‘열림’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좌)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우) ‘동행’ 배득현(산업경영공학 2010) 정후보(좌) 신승룡(전자공학 2011) 부후보(우)

도 내세웠다. ‘강의 수 증설 TF’를 통해 온라인 강의 추가, 7교시 활성화, 필수 교양 증설 등 해결책을 논의하고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 양 후보 수강신청 개선과

## 단과대학 리모델링에 공감

동행 선본은 정정기간 마감 직전 강의가 폐강 돼 피해보는 학생이 없도록 폐강 강좌 신청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다른 강의로 넣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과목 정원 110% 개설 의무화와 교양 담당 교수를 증원을 통해 전체적인 과목 수를 늘리

겠다는 공약도 있다.

시설 문제와 관련해 두 선본 모두 ‘리모델링’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단, 외국어대학과 생명과학대학 등은 이들 선본의 공약과는 관계없이 동계 방학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열림 선본은 “학생들이 진행과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학생 참여 TF를 꾸릴 것”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에 학생의 요구가 반영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동행 선본 측은 “공적 기관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므로써 건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선본은 상대 선본에는 없는 공약도 내

세웠다. 열림 선본은 ‘상설기구 신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원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행 선본은 이원화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49대 총학에서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다. 이 뿐 아니라 강의 매매 방식을 위한 ‘수강 삭제 지연제도’ 도입, 강의 수 증설을 위해 수요가 많은 강의에 있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점 역시 지난 총학에서 논의를 끝내고 시행이 예정돼 있다.

열림 선본의 김효형 정후보는 “49대 총학의 공약과 유사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그 동안 ‘계획이다’라는 말로 학생과의 약속을 어겨 온 사안에 대해

새로이 공약을 작성한 것이다”고 말했다.

동행 선본은 ‘입학금 폐지와 반환’을 중점 공약으로 꼽았다. 국제캠에서 지난해 10월 ‘경희대 청년하다 입학금폐지운동본부’가 ‘입학금 폐지 운동’을 전개하며 교육부와 학교에 입학금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소송인단을 모집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학금 공약은 열림 선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학생과 함께 입학금 폐지와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배득현 정후보는 “입학금이라는 명칭에 맞게 입학에 사용돼야 했으나 사실상 신입생에 대한 추가등록금 형식으로 사용돼 왔다”며 “회계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입학 외 용도로 쓰이는 돈은 신입생에게 걸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열림 “이원화”, 동행 “입학금” 공약 차별화

입학금 폐지와 반환을 공약하는 한편, 생활비 장학금 개설, 교양 교수 증원과 같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도 함께 공약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배 정후보자는 “생활비 장학의 경우 이미 한양대에서 교비 2,000만 원 규모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고 동문회나 대외협력처와의 협조, 그 외의 기금마련을 통해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 정후보는 “교양 담당 교수의 경우에도 과거 교양교수를 대거 채용한 적이 있었다”며 “현재 배분비수 과목에 대한 증원 요청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학교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정후보는 “우리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정부와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 밝혔다.